

목포대·순천대 통합, 원론적 합의 '사실'·구체적 방법 '회의'

14일 전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큰 틀에서의 통합 합의'를 외부에 발표한 이후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순천대 역시 '합의'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10월15일자 1·3면>

양 대학 모두 우선 각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내부 의견 일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이 이미 실무진을 구성해 통합 대학과 관련 교육부 질의를 준비하고, 통합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파악되고 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순천대와 (대학 통합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해 지난주 처음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는 순천대 총장과 대학통합 일정, 절차, 요건 등을 교육부에 질의한 후 교육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논의해보자고 한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천대에서 열린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 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김문수 국회의원 등 대학 통합과 관련한 정부·지자체·대학의 장들이 모두 참석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 의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도가 양 대학 총장이 교육부장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양 대학의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

양 대학 의견수렴 시간적 한계
오랜 갈등·신뢰 부족이 변수
대학 본부·통합 의대 등
도민 미래 중심 문제 해결해야

조정 등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려한 대학총장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우선 느슨한 통합도 가능', '전폭적 지원' 등의 발언은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 참석자들에게 논의 내용의 외부 발표 사실을 일일이 확인한 뒤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 대학들이 '합의'라는 문구의 무게로 인해 다소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뿐 향후 교육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통합을 위해 양 대학이 노력하도록 지원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양 대학이 상호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년 전남 국립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대략적인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양 대학의 논의 과정에서 대학 본부, 통합 의대 위치 등을 두고 갈등이 폭발하면서 테이블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가 시간적인 한계, 오랜 갈등·마찰로 인한 신뢰 부족 등이 변수로 작용해 논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양 대학이 통합에 원론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학 통합은 어디까지 양 대학이 협상을 통해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 치밀한 논의를 통해 지역적인 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일단 양 대학 모두 총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통합 논의를 하는데 있어 마찰·갈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대 공모도 진행해 11월까지 교육부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통합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대비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앞으로 대학 간 통합 논의를 잘 지켜 볼 것"이라며 "공모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용역기관이 공모를 위한 각종 평가 지표를 작성중이 있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구성된 설립방식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설립 방식은 공모를 통한 1의과대학·2대학병원,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당도 대통령도 고칠 건 고치고 민심에 더 가까이 가려 노력을”

나경원 의원 광주 방문 인터뷰

“곡성군수 선거 지역 발전 기회
남 영암의 손녀·여수의 딸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서겠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15일 “당이든 대통령이면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민심에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여당과 대통령이 임기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서로 헤어지는 모습, 충돌하는 모습,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당에도,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국민의힘)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리며 정체돼 있다. 그 원인과 이를 해소할 풀고구는.

▲일부는 (대통령실과 따로 가야) 당이라고 산다는데, 당과 대통령은 절대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은 사실상 일심동체인데 지금은 이인삼각 경기에서 끈 풀고 각자 뛰겠다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선 여당과 대통령실을 따로 보지 않는다. 민심과 떨어진 부분, 민심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고치고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권 선거운동 돕는 꼴’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에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리스크가,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 대표 리스크와 관련한 민주당 대응은 지나치다. 정치는 ‘프레임 싸움’인 만큼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없고 우리 리스크를 부각하고 가속하는 데 기여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4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는데 정치가 진영 간 더 극단화되고 비정상화됐다. 여야 모두 리스크 요인이 높기 때문에 본질과 어긋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한다.

-최봉의 10·16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곡성을 방문해 보니 예전보다 더 귀 기울여 주신다고 느꼈다. 전남지역은 전체적으로 발전의 욕구가 많다. 이번 재선거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곡성군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성을 따져볼 때 우리 후보 공약을 좋게 봤지만 호남에서 국민의힘 인기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야 모두 바뀌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주시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제2 지역구’로 영암을 선뎠는데.

▲저는 ‘영암의 손녀’다. 할아버지가 영암 출신이고 어머니가 여수 출신이다. 영암 동행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이 있으면 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많은 얘기를 나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정지인 나경원에게 광주는 어떤 의미인지.

▲나경원에게 광주와 호남은 화합과 통합의 계기다. 신냉전, 블록화, 패권 경쟁 심화 추세에서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화합하고 통합해야 G5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함께 하겠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재선거 개표 모의 시험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영광군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투표지 분류 기 최종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

무회의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전 세계 2조5억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

렸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제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Costa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예약 3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10월 31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기륭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전세선

롯데관광만의 특별함! 스페셜 공연!

일루션리스트 이은결 선상 퍼포먼스
방송인/가수 임백천 선상 콘서트
가수 김수찬 트롯 콘서트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료규정: 일반여행인 제46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인 영인보증보험 10만원 가입 ●여행보험: 여행자보험 5만원 가입 ●여행출발지: 인천(김계/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센터: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